

#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 주민설명회

이틀간 두차례...480여명 참석  
환경평가·입지 조사 과정 등 설명  
일부 주민 고성·몸싸움 저지 시도

순천시가 연향뜰에 차세대 공공 자원화시설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갖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순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해룡면주민자치센터와 팔마체육관 올림픽기념관 교육장에서 이틀간 차세대 공공 자원화 시설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을 모으는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는 화차당 각자 주민 200여 명과 2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차세대 공공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과정 등이 제시됐다. 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담긴 현장 측정 및 모델링 분석 결과 공공 자원화시설 운영 시 인근지역의 대기질, 위생·공중보건, 악취 등에 대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또 입지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에서 입지 후보 지역 선정 과정에 대해 그동안의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전문 연구기관은 연향뜰 지하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돼 가동해도, 대기환경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설명회 시작과 동시에 반대대책위 측 주민들이 고성과 함께 단상으로 나가려는 움직임과 이를 막으려는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반대대책위 측 주민들은 전문 연구기관의 대기 환경기준 부합 여부보다는 5곳 이상 후보지에 대한 전략영향평가 진행과 비교 분석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두 차례 걸쳐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그동안 차세대 공공 자원화시설을 둘러싼 시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면서 "순천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차세대 공공 자원화시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가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이순신공원 일원에 여수시립박물관을 건립한다. 건물 구상도.

## 여수시립박물관 착공...2025년 개관

내일 이순신 공원서 기공식

여수시립박물관이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시작했다. 여수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께 이순신공원 일원에서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기공식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여수시립박물관은 전남 동부권 첫 국립 역사박물관이 될 예정이다. 이날 정기명 여수시장과 국회의원, 전남도·여수시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박물관의 성공적인 개관에 힘을 보탠다. 여수시립국악단의 무대로 행사를 시작하고 경과보고, 기념사 낭독 등이 진행된다. 여수시는 지난달 박물관 시공사를 선정하고 이

달 착공한 뒤 15개월 건립에 들어간다. 이순신공원 일원에 지상 1층으로 1개 동 건물을 짓는다. 이곳은 전시실과 어린이 체험실, 수장고, 세미나실, 다목적실 등을 갖춘다. 여수시는 그동안 유물을 사들이고 기증 운동을 벌여 박물관 안을 채울 1만5000점을 확보했다. 전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하는 여수시립박물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여수에서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박물관의 성공적 건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보성 태백산맥문학관 개관 15주년 기념행사

조정래 작가 함께 하는 북콘서트  
태백산맥 필사 독자 감사패 전달

보성군 별교읍 조정래 태백산맥문학관이 개관 15주년을 맞아 지난 27~28일 기념행사를 치렀다.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은 별교를 배경으로 해방 전후 격동의 한반도 정세를 그렸다. 태백산맥문학관은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이 된 보성군 별교읍에 2008년 개관했다. 개관 이후 77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기념행사 첫날에는 기념식을 열고 조정래 작가와 함께 하는 북콘서트 '민족분단, 그리고 태백산맥', 태백산맥 문학관 토크쇼 등도 진행했다. 15주년 기념식에는 조정래 작가와 김철우 보성군수, 김초혜 시인, 김원 건축가, 해남출판사 송영석 대표, 관람객 100여 명이 함께했다. 기념식에서는 조 작가가 태백산맥 10권을 필사한 독자(개인 3·단체 1)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현재 태백산맥문학관에는 이번이 기준된



지난 27~28일 열린 보성군 별교읍 '태백산맥문학관 개관 15주년 기념식'에서 조정래 작가와 관람객 100여 명이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4권을 포함해 총 61권의 기증 필사본이 전시돼 있다. 이날에는 조정래 작가와 문학기행을 떠났다. 조정래 작가는 "항상 휴관 없이 운영되고 문학

관을 찾아주시는 관람객분들이 있었기에 개관 15주년을 맞이했다"며 "태백산맥"이라는 하나의 책을 주제로 설립된 이 특별한 문학관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고흥우주과학관 목성·토성 관측프로그램 운영

11월 한달 간 동시 관측 가능  
800mm 반사 망원경·돔 영상관 보유

고흥군이 11월 한 달 동안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서 태양계 거대행성인 목성과 토성 관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구 지름의 10배 이상 크기인 목성과 토성이 저녁 하늘에 떠서 동시에 관측할 수 있고, 11월 말에는 달-목성-토성을 동시에 관측 가능한 기회가

생긴다. 망원경으로 목성을 보면 자체에 줄무늬와 함께 주위를 도는 위성들을 볼 수 있으며, 토성은 감싸고 있는 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서쪽 하늘에는 지는 은하수가, 동쪽에서는 관측하기 좋은 성단이 떠서 행성 이외에도 다양한 대상을 볼 수 있다. 목성은 2024년 초까지 계속 관측할 수 있지만, 토성은 서쪽으로 빨리지면서 12월부터 일부 시간 관측이 안 되고 이후 한동안 관측할 수 없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은 우리나라 최대급의 800

mm 반사 망원경과 돔 영상관을 보유하고 있어 우주의 신비를 생생하게 관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층 전시실에는 앙부일구 등 고천문기와 태양계중계 및 용오름 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돼 있으며, 1943년 고흥 두원에 낙하한 운석 모형이 전시돼 있다. 3층 전망대에서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 관계자는 "11월 밤에 야외 관측을 해야하므로 방한 대책을 단단히 준비하고 관측해야 한다"며 "날씨가 흐리면 관측할 수 없으므로 날씨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구례군이 최근 구례농협산지유통센터(APC)에서 베트남에 배 17t을 수출하기로 하고 상차식을 열었다.

## 고품질 구례 배 17t 베트남 수출

구례군은 최근 지역에서 난 배 17t을 베트남에 수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례군과 구례농협은 최근 구례농협산지유통센터(APC)에서 구례 배 베트남 수출 상차식을 열고 배 17t을 실었다.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 작황이 부진해 수출량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섬진강과 지리산을 품은 구례는 큰 일교차 덕분

에 고품질의 배를 생산하고 있다. 구례군은 배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 상담을 벌이며 재배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농민들의 열정과 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구례 배의 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구례 배가 더욱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